

## 특특뉴스

### SKT “전고객 유심 보호 가입 완료”

SK텔레콤은 14일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해 전체 사용자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류정환 인프라 전략기술 센터장은 이날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 유심 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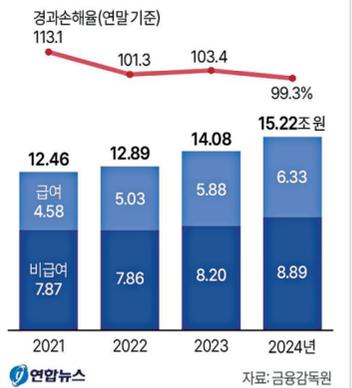
SKT는 해외에 체류 중인 모든 고객도 가입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해킹 피해 사고를 수습 중인 SKT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진행해 왔다.

허접으로 지적된 해외 로밍 사용자 역시 시스템을 보완해 지난 12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 그래픽 경제

###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 작년 실손 보험금 1조 늘어난 15조

작년 비급여주사,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종목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와 손해율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효과로 다소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원(8.1%) 증가했다.

#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 가정의 달 1억2천만원 쾌척

##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지역 취약계층에 희망 됐으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는 최무진 (주)나눔테크 대표가 아너소사이터티 성금 2,000만원과 명문기업 성금 1억원, 총 1억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구 화정동 골드클래스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과 최무진 (주)나눔테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소중한 성금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전달될 계획이다.

이번 기부는 개인으로서의 나눔 실천인 아너소사이터티 회원 활동과 기업 차원의 사회 공헌인 명문기업 기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최무진(왼쪽 세 번째) (주)나눔테크 대표가 14일 골드클래스(주) 본사에서 열린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에 아너소사이터티 성금 2,000만원과 명문기업 성금 1억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왼쪽 네번째)에 기탁했다.

설립된 (주)나눔테크는 국내 아동복지 성금 1,000만원 기부, 심장재단과 연계한 청년 심장수술 지원 등 꾸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최무진 (주)나눔테크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탁하게 됐

다”며 “이번 나눔이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최무진 대표님의 변함없고 진정성 있는 나눔은 우리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주시는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소중한 마음까지 담아 정직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무진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아너소사이터티 149호 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2023년 12월에는 (주)나눔테크가 광주 명문기업 10호로 가입했다. 이번 기탁금을 포함한 누적 기부금이 3억원을 넘어 실버회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수민 기자

# 올 5대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858억원...하나은행 최다

## 하나은행 5건 488억 가장 많아 금융권, 올해 13번째 사고 공시

은행권이 지난 수년간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놨으나 사기나 내부 직원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들어서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5건, 488억 4,500만원으로 가

장 많았다. 이어 건수 기준으로 국민은행(4건, 110억 9,800만원), 농협은행(2건, 221억 5,100만원), 신한은행(2건, 37억 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단일 사고 규모로는 하나은행이 지난달 14일 공시한 외부인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가 305억원으로 가장 컸다.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 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에서도 수백억원대 외부인 과다대출 사고가 있었다. 대출

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 규모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건이다.

내부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고도 잇따랐다.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원은 해당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만 2건이다. 지난 9일 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사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

로 약 46억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취급하는 사고도 있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과 거래 중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3년간 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적발 건수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말뉴스

중흥그룹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